

壬辰倭亂 직후 軍需物資 확보와 軍需交易의 영향

윤여석*

1. 머리말
2. 壬辰倭亂期 軍需物資의 확보
3. 임진왜란 직후 軍需市場의 발전
4. 軍需交易의 영향
5. 맺음말

1. 머리말

궁각(弓角) · 조총(鳥銃) · 화약(火藥) · 연환(鉛丸) 등의 군기(軍器)와 쌀 · 보리 · 콩 등의 군량(軍糧)을 비롯한 군수물자(軍需物資)의 확보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였다. 조선은 임진왜란기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으며, 한편으로 부족한 군수물자는 명으로부터 지원받았다.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크게 현물지원과 은(銀)을 지원하는

* 부산대학교 사학과 박사과정 수료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조명 간 금지되어 있던 군기와 은의 교역이 공인되면서 조선은 자국 은과 명은(明銀)을 이용한 군수교역이 가능해졌다. 전쟁 이후에도 군수물자의 국내생산 확대와 포상정책, 군수교역이 지속되면서 군수시장이 형성되었고, 대일교역이 재개되면서 시장은 확대되었다. 또한 군수물자의 확보와 군수교역은 조선 후기 경강(京江)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선(私船)의 활동, 중개무역의 매개체가 될 수 있었던 은 유통 및 사무역의 확대에 큰 영향을 미쳤다. 즉, 군수교역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과 17세기 전반 급변하는 국제정세와 맞물리며 조선의 상업사적인 측면에 미친 영향이 결코 적지 않음에도 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군수교역에 관한 연구는 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화기·화약의 발전상에 관한 연구를 기반으로 17세기 조명·조청·조일 간 군기교역의 주체나 전개과정 등이 검토되었으며,¹⁾ 17세기 전후 대중국 교역정책 속에서도 일부 다루어졌다.²⁾ 군량은 조선과 일본의 군량 확보 및 조달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³⁾ 이외에 군량

-
- 1) 유승주, 「17世紀 私貿易에 관한 一考察」, 『弘大論叢』 10, 홍익대학교, 1979; 吉岡新一, 「文祿・慶長の役における火器についての研究」, 『朝鮮學報』 108, 朝鮮學會, 1983; 김동철, 「17세기 日本과의 交易·交易品에 관한 연구」, 『國史館論叢』 61, 국사편찬위원회, 1995; 米谷均, 「十七世紀前期日朝關係における武器輸出」, 『十七世紀の日本と東アジア』, 山川出版, 2000; 김양수, 「朝鮮後期 譯官들의 軍備講究」, 『실학사상연구』 19-20, 모악실학회, 2001; 허태구, 「17세기 朝鮮의 焰硝貿易과 火藥製造法 발달」, 『韓國史論』 47, 서울대학교, 2002; 양홍숙, 「17世紀 前半 回答兼刷選使의 派遣과 經濟的 意味」, 『항도부산』 21, 부산광역시, 2005; 윤유숙, 「17世紀 朝日間 日本製 武器類의 交易과 密買」, 『史叢』 67,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2008.
 - 2) 이현숙, 「16-17世紀 朝鮮의 對中國 輸出政策에 관한 연구」, 『弘益史學』 6, 홍익대학교사학회, 1996; 『十七世紀初葉の中韓貿易』, 중국문화대학교박사학위논문, 1997; 「왜란·호란 시기 조선의 對中國 輸入政策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 68, 백산학회, 2004.
 - 3) 조선의 군량 확보 및 조달은 이장희, 「壬亂中糧餉考」, 『史叢』 15-16,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1971; 김용근, 「朝鮮前期 軍糧米의 確保와 運送」, 『史學研究』 32, 한국사학회, 1981; 장학근, 「壬亂初期 明軍 來援과 軍糧論義」, 『壬亂水軍活動研究論叢』, 해군군사연구소, 1993; 김강식, 「任辰倭亂中の 軍糧 調達策과 影響」, 『文化傳統論集』 4, 경성대학교부설한국학연구소, 1996; 六反田豊, 「文祿・慶長の 役(壬辰倭亂) 開戰初期에 있어서의 朝鮮側의 軍糧調達과 그 輸送」,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확보의 어려움과 조명 간 곡식의 유통을 당시 기근현상에서 살펴거나⁴⁾ 전쟁 이후 군량의 확보와 명군의 주둔 문제를 다룬 연구도 있다.⁵⁾ 하지만 군기의 교역은 주로 17세기 중반 이후를 다루고 있으며, 군량의 경우 교역을 통한 군량확보 과정이나 사선의 활용에 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들 연구는 당시 군수물자의 확보와 군수교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지 않아 전쟁 직후 군수시장의 형성과 확대, 그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상세히 다루지 못했다.

조선후기 월과총약환계(月課銃藥丸契)의 성장이나 궁각계공인(弓角契貢人)의 활동에 관한 연구는⁶⁾ 전쟁이후에도 군수시장이 지속되는 모습과 군기의 유통을 통한 경제적 활동을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 하지만 조선후기 국내 군수공업의 발달이나 공인들의 활동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군수물자 확보와 교역의 영향선상에서는 고찰이 부족하다. 임진왜란 때 유입된 은이 조선후기 은 유통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연구는⁷⁾ 군수교역의 영향으로써 주목되나 주로 국제적인

한일역사공동연구위원회, 2003, 일본의 군량 확보 및 조달은 三鬼清一郎, 「朝鮮役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名古屋大學 文學部 三十週年記念論集』, 名古屋大學文學部, 1978; 櫻井克己, 「豊臣政權の朝鮮出兵における兵糧米調達政策とその實態」, 『一橋研究』, 一橋大學大学院學生會, 1984; 中野等, 「朝鮮侵略戦争における豊臣政權の兵糧補給について」, 『九州大學九州文化史研究所紀要』 35, 九州大學文學部附屬九州文化史研究施設, 1990; 中條健太, 「秀吉の朝鮮侵略における兵糧米調達について」, 『ヒストリア』 165, 大阪歴史學會, 1999.

- 4) 김문기, 「17세기 중국과 조선의 기근과 국제적 곡물유통」, 『역사와 경계』 85, 경남사학회, 2012.
- 5) 유승주, 「壬亂後 明軍의 留兵論과 撤兵論」, 『千寬宇先生還曆紀念韓國史學論叢』, 正音文化史, 1985; 김경태, 「임진왜란 후 明 주둔군 문제와 조선의 대응」, 『동방학지』 147, 연세대학교국학연구원, 2009.
- 6) 유승주, 「朝鮮後期の 月課銃藥丸契 研究」, 『韓國史論』 9, 국사편찬위원회, 1981; 김동철, 「朝鮮後期 水牛角貿易과 弓角契貢人」, 『韓國文化研究』 4, 부산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1991; 『朝鮮後期 貢人研究』, 韓國研究院, 1993.
- 7) 한명기, 「17세기초 銀의 유통과 그 영향」, 『규장각』 15,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1992; 권내현, 「17세기 후반~18세기 전반 조선의 은 유통」, 『역사학보』 221, 역사학회, 2003; 박소은, 「17·18세기 호조의 銀 수세 정책」, 『한국사연구』 121, 한국사연구회, 2003.

관계 속에서의 은 유통을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조선에서 유통이 억제되었던 은이 군수물자의 확보 및 교역과정에서 활용되는 모습이나 임진왜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될 수 있었던 배경 등을 정치하게 다루지는 못했다.

일부 연구에서는 임진왜란을 상업 발달의 계기로 언급하기도 하였으나 토지 감소와 인구 이동으로 인한 경제적 변화, 17세기 중반 이후의 증개무역 등을 중심으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조선이 군수물자를 확보하고 군수교역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이 형성·확대되면서 조선후기 상업 발전에 미치게 되는 영향을 살펴보지 못했다.

본 논문은 먼저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와 명의 지원과정에서 은(銀)의 지원을 통한 조명 간의 군수교역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전쟁 직후 명과 이루어진 군기의 교역은 염초와 화약의 확보 및 군수시장의 형성에, 일본과의 교역 재개는 조총과 재원의 확보 및 시장의 확대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그 동안 임진왜란을 정치적·군사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이해하던 것에서 나아가 임진왜란 직후 군수물자 확보와 군수교역이 조선후기 상업발달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고자 한다.

2. 壬辰倭亂期 軍需物資의 확보

가.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 노력

조선은 지방의 병영·수영 등에서 군기를 제조하기도 하였으나 대부분 군기시(軍器寺)를 중심으로 서울 지역에서 생산하였다.⁸⁾ 예를

8) 허선도, 『韓國火器發達史』上, 군사박물관, 1969 참조.

들어 화약은⁹⁾ 제조 기술의 유출을 막기 위해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제조 원료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생산할 수 있었던 유탄(柳炭)을 제외하면 염초는 국가의 통제 하에 자급자족의 생산체제를 유지하고 있었고¹⁰⁾ 유황은 주로 일본에서 조달하였으므로 기술과 재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했다고도 할 수 있다.

조선이 군기의 생산·유통을 통제하고 있었던 반면 일본은 타네가시마 토키타카[種子島時堯]가 포르투갈 상인에게서 조총을 구입하여 제조기술을 익힌 것을 시작으로 각 다이묘들도 조총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였다.¹¹⁾ 일본의 무기 제조업자는 자유업 형태로 기술이 우수하면 중용되었으며,¹²⁾ 사카이[堺]·쿠니토모[國友] 등 킨키[近畿] 지역에서는 조총의 대량생산이 가능해졌다.¹³⁾ 따라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무기체계는 조총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있었다. 조선도 조총의 필요성을 느끼고¹⁴⁾ 전술체계와 군사제도의 변화를 감수하면서 포수

9) 조선전기에는 화약을 염초 75%·유황 15%·유탄 10%의 비율로 조합해서 만들었다 (육군본부, 『韓國古代武器體系』, 군사연구실, 1979, 60~61쪽). 1698년 역관 김지남(金指南)이 지은 『新傳煮硝方』에는 염초 16냥·유황 1냥 4전·유탄 3전의 비율로 배합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10) 허태구, 앞의 논문, 2002, 212~213쪽.

11) 노성환, 「조총을 통해서 본 한일관계」, 『동북아시아문화연구』 20,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09, 494~497쪽.

12) 吉岡新一, 앞의 논문, 1983, 108쪽.

13) 宇田川武久 編, 『鐵砲傳來の日本史』, 吉川弘文館, 2007, 55~118쪽 참조.

14) 『宣祖實錄』 권45 宣祖 26년 윤11월 戊申. 류성룡(柳成龍)은 일본이 승리하는 이유를 조총 때문이라고 하였으며(류성룡, 『西厓先生文集』 권6 「書狀」 乞抄擇精兵以爲後圖狀), 이순신(李舜臣) 역시 조총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다(이순신, 『亂中日記』, 癸巳 9월 15일). 한효순(韓孝純)은 병서 『神器秘訣』에서 조총의 우수성을 치사율과 명중률에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시 궁시보다 적은 훈련으로 조작법을 익힐 수 있어 단기간 내 많은 포수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노영구, 「16~7세기 鳥銃의 도입과 조선의 軍事的 변화」, 『한국문화』 58, 서울대학교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2, 121쪽). 그러나 조총은 기병의 공격에 취약하고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연사의 어려움과 화약 보급문제 등의 단점들도 있었다(장정수, 「17세기 전반 朝鮮의 砲手 養成과 運用」,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2010, 18~20쪽).

(砲手)와 살수(殺手) 주력의 훈련도감을 설치하였으며¹⁵⁾ 군기와 제조 원료의 확보 및 생산을 위해 노력하였다.

조선은 부족한 군기의 제조기술을 항왜(降倭)나 명인(明人)에게서 배우고 국내 기술자에게 전습시켜 생산의 증가에 힘을 쏟았다.¹⁶⁾ 주목되는 점은 60근 이상의 염초를 바친 사람은 면역시켜주고¹⁷⁾ 화약도 개인이 만들어서 관에 납부하거나 전매(轉賣)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는 점이다.¹⁸⁾ 비록 생산량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통제되었던 군기의 사적 제조 및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궁각의 주요 재료인 흑각은 조선전기에는 명과 공식적으로 매년 200부(副)를 교역하였는데,¹⁹⁾ 16세기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일본과 교역량이 증가하던 상황이었으므로²⁰⁾ 전쟁의 발발로 주요 수입처가 사라지게 되었다. 즉, 조선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생산이 가능했던 연환(鉛丸)을 제외한²¹⁾ 궁각·조총·화약 및 염초 등 전쟁 수행을 위한 주요 군기들의 충분한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선은 자국 군사뿐만 아니라 명군이 소비하는 군량까지 확보해야 했다.²²⁾ 조선군은 약 168,400명이었으며²³⁾ 군량은 1만 명이 1년에

15) 노영구, 앞의 논문, 2012, 117~122 참조.

16) 조총의 제조기술 습득은 박철환, 「壬辰倭亂期 朝鮮軍의 火藥兵器에 대한 一考察」, 『軍史』 3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1995, 385~389쪽, 염초 제조기술 습득은 유승주, 앞의 논문, 1979, 113~114쪽 참조.

17) 『宣祖實錄』 권43 宣祖 26년 10월 壬寅; 권134 宣祖 34년 2월 丁丑

18)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丁亥

19) 『成宗實錄』 권130 成宗 12년 6월 壬子. 대명관계에 따라 교역량은 일정치 않았으며, 조선이 사무역으로 궁각을 확보하여 외교적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

20) 김병하, 『李朝前期 對日貿易 研究』, 한국연구원, 1969, 155쪽.

21) 연환의 재료인 연철(鉛鐵)은 함흥(咸興)·안변(安邊)·단천(端川)·충주(忠州) 등지에서 채취되었다(『宣祖實錄』 권71 宣祖 29년 1월 乙未). 단천은 은을 비롯한 연환의 주요 생산지였다. 1594년 단천의 채은관(採銀官) 김계선(金繼先)은 연환 20,100개를 켜며(『宣祖實錄』 권56 宣祖 27년 10월 甲寅), 1596년에는 병조에서 사들인 연환이 10만개에 이르렀다(『宣祖實錄』 권83 宣祖 29년 12월 庚午).

22) 『宣祖實錄』 권34 宣祖 26년 1월 丁卯

23) 군사와 말의 합은 172,400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 가운데 육군은 약 115,200명,

약 44,000석을 소비하였다.²⁴⁾ 임진왜란 초기 명군 48,585명에게는 1명 당 쌀 1되 5홉을, 26,700필의 말에게는 콩 3되를 보급하여 하루에 쌀은 약 720석, 콩은 약 801석을 소비하였다.²⁵⁾ 정유재란 때에는 142,700명이 파견되었는데²⁶⁾ 군량의 지급 기준이 앞의 조건과 같다면, 쌀은 하루에 약 2,115석, 콩은 약 2,353석이 소비되는 것이다. 실제 조선정부는 2만 명의 명군이 1년간 소비하는 군량은 12~20만석에 이를 것으로 파악하였다.²⁷⁾

조선은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세(收稅)·작미(作米)·둔전(屯田)·모곡(募穀)·무곡(買穀) 등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세는 인구와 전결의 감소 등으로 전쟁 발발 이듬해인 1593년에는 서울로 운반된 전세가 25,000여석에 불과할 정도로²⁸⁾ 급격히 감소하였다. 작미는 노비의 신공이나 정부에서 수취 할 공물 등을 쌀로 거두는 것인데, 소강상태인 1595년에도 원수(元數) 약 5만여석의 확보도 원활히 이루어 지지 못했다.²⁹⁾ 둔전은 부족한 군량 충당과 백성의 구제, 훈련도감군(訓練都監軍)의 군량미 조달을 위해 실행되었다.³⁰⁾ 일정부분의 성과는 있었으나 수확량이 증가만큼도 안 되는 경우도 있었다.³¹⁾ 모곡의

수군 약 15,300명, 의병 약 27,900명, 조비군(措備軍) 10,000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다(『宣祖實錄』 권34 宣祖 26년 1월 丙寅; 서태원, 「壬辰倭亂에서의 地方軍 指揮體系」, 『역사와 실학』 19·20, 역사실학회, 2001, 319쪽).

24) 『宣祖修正實錄』 권28 宣祖 27년 4월 己酉

25) 말 26,700필은 장령의 말이 제외된 것이고, 장령을 제외한 군사 수는 48,005명이다. 중국의 쌀 1되 5홉은 조선의 2되 7홉에 준하고 콩 3되를 대략 5되 4홉에 이른다(『宣祖實錄』 권31 宣祖 25년 10월 壬子). 이후 다른 기사에는 명군 1명이 4되를 소요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宣祖實錄』 권46 宣祖 26년 12월 戊辰)

26) 최두환, 『壬辰倭亂 時期 朝明聯合軍 研究』, 경상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11, 289쪽.

27) 전성기 조선의 수세량도 양계(兩界)를 제외하면 쌀과 콩·조는 23~24만석이었는데 쌀은 14만석에도 이르지 못했다(『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辛卯).

28) 『宣祖實錄』 권40 宣祖 26년 7월 辛酉

29) 『宣祖實錄』 권67 宣祖 28년 9월 癸巳

30) 이장희, 「壬辰倭亂中 屯田經營에 대하여」, 『東洋學』 26, 단국대학교동양학연구소, 1996, 160~165쪽.

31) 『宣祖實錄』 권65 宣祖 28년 7월 癸酉

경우 납곡자가 일정한 군량을 납부하면 면천·면역이 가능하도록 공명첩(空名帖)을 주어 독려하였고,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혜택을 개선하였음에도 어려워졌다.³²⁾ 마지막으로 매대로 군량을 확보하는 무곡이 있었다. 조선정부는 다양한 방법으로 군량을 매대하여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재정이 부족하고 곡물의 생산량도 한정되어 있어 충분한 양을 마련할 수 없었다. 이처럼 조선은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음에도 재정·기술·재원 등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어 명의 지원을 통해 부족한 군수물자를 확보하였다.

나. 명의 지원과 군수교역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크게 현물을 지원하거나 결제대금인 은을 지원하는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지원된 은은 조선이 보유한 은과 함께 군수물자를 교역하는데 사용되었다. 따라서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단순한 현물 지원이 아니라 교역을 동반하였으며, 조선은 교역의 주체로서 참여하였기에 조명 양국의 교역이라는 관점에서 군수물자의 지원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전쟁초기 군수교역은 군기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592년 명군의 파병을 사은(謝恩)하기 위해 파견되었던 신점(申點) 일행은 면연은(免宴銀) 45냥 및 여비와 잡물로 궁각 1천 3백 8편(片)과 염초 2백 근을 구입하였다.³³⁾ 명은 타국과 군기를 교역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음에도³⁴⁾ 조선은 따로 군기교역을 요청하지 않고 구입한 것으로 보아 사무역으로 여겨지며 교역량도 많지 않았다.

32) 이장희, 앞의 논문, 1971, 364~365쪽. 혜택의 변화는 『宣祖實錄』 권33 宣祖 25년 12월 乙卯; 권35 宣祖 26년 2월 辛丑 事目 참조.

33) 『宣祖實錄』 권28 宣祖 25년 7월 辛巳

34) 『大明律集解附例』 권55 「兵律」, 私出外境及遠禁下海. 임진왜란 직전인 1589년에도 명은 조선의 화약 수매(收買) 요청을 거절하였다(한치윤, 『海東繹史』 권23 「兵志」 兵器).

이와 함께 공식적인 군기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1592년 명은 마가은(馬價銀) 3,000냥을 조선에 지급하여 궁각과 화약을 교역하도록 하였다.³⁵⁾ 마가은은 말을 구입하기 위한 비용으로 명의 서북지역에서는 차마무역(茶馬貿易)을 통해 말을 마련하였지만 북방과 요동(遼東)은 병부와 태복시(太僕寺)에서 지급한 마가은으로 말을 구입하였다. 또한 마가은은 변방 오랑캐의 방어를 위해 상공(賞功)·양향(糧餉)·수변(修邊) 등에도 사용하였으며 지급되는 수량이 고정되어있지는 않았다.³⁶⁾ 요동과 인접해 있는 조선은 마가은을 지원받았으며 전쟁수행에 관한 전반적인 일에 사용하였다. 고급사(告急使) 권협(權愜)이 일본의 재침을 알리러 명에 간 사례는 마가은을 이용한 군기교역 과정을 상세히 알 수 있어 주목된다.

가-1) 신이 또 표헌(表憲)을 시켜 궁각·초황을 사줄 것을 고하니, 낭중이 '내가 마땅히 제청하여 군문에 축적된 것을 급여하겠으니, 그대들은 그곳에 가서 받아가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³⁷⁾

가-2) 조선에서 요청한 초황과 궁각은 원래 군중의 화약 제조와 활 제작에 쓰이는 것이므로 결여되어서는 안 된다. 태복시에 공문을 보내어 마가은 2천 냥을 변통해서 예부에 보내어 차출되어 온 배신(陪臣)에게 부쳐 보낼 것이니, 해관(該館)에서 시장을 여는 날 스스로 교역하게 하라. 따라서 해관의 관부(館夫) 및 포상(舖商)들을 엄히 통제하여 공평한 값으로 교역하게 할 것이요 (중략) 화약과 병기는 더러 공급이 끊어지더라도 일일이 다 조정에 아될 필요는 없다.³⁸⁾

가-1)에서 명은 군문에서 보유 중인 군기를 지급한다고 하였으나 가-2)를 보면 마가은을 지원하여 조선의 사신과 역관이 명의 포상과

35) 『宣祖修正實錄』 권26 宣祖 25년 11월 丁巳

36) 賴建誠, 『邊鎮糧餉: 明代中後葉의 邊鎮糧餉與國家財政危機, 1531~1602』, 清華大學經濟學系, 2005, 265~267쪽.

37) 『宣祖實錄』 권87 宣祖 30년 4월 乙亥

38) 『宣祖實錄』 권87 宣祖 30년 4월 癸酉

관부를 통해 시장에서 구입하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조선의 역관이 명의 상인들과 직접 교역하였으나, 명의 상인들이 비싼 값을 요구하는 등의 폐단이 발생하였다. 이에 명 관료가 개시(開市)를 주재하였으며, 거래내역은 표문(票文)으로 상세하게 남기도록 하였다.³⁹⁾ 당시 제독이 자신이 아는 사람 6~7인만을 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다른 상인들의 불만이 많았다는 기록을 통해⁴⁰⁾ 군기교역은 이윤이 많아 참여하고자 하는 상인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군기의 교역량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았고 명이 지원한 마가은을 사용하면서 시세에 따라 조절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 1597년 고급사 권협의 군기교역 현황

교역 물품	구가(舊價)	현가(現價)	교역량	지급액
우근(牛筋) 1근(斤)	1전(錢) 7푼(分)	1전 5푼	856근 4냥	155냥 4전
궁각 1부(副)	6푼 5리	6푼 5리	9,670부	630냥 5전 5푼
유황 1근	4푼 5리	4푼	6,218근 12냥	248냥 7전 5푼
염초 1근	1푼 8리	1푼 8리	53,552근 2냥	909냥 4전 1푼 3리

출처: 권협, 『石塘公燕行錄』 5월 20일 기사.

〈표 1〉을 통해 당시 교역물품, 가격변동과 교역량 및 지급액을 알 수 있다. 권협 일행은 회동관(會同館)의 개시에서 궁각을 만드는데 사용하는 우근 856근 4냥·궁각 9,670부를 교역하였다. 궁각은 전쟁이 끝난 시점에서도 보유량이 많았다는 기록으로 보아⁴¹⁾ 명과의 교역으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염초와 유황의 경우 화약으로 제조한다면⁴²⁾ 염초로는 7만근, 유황으로는 4만근 이상

39) 권협, 『石塘公燕行錄』 3월 23일; 30일

40) 권협, 『石塘公燕行錄』 4월 9일

41) 『宣祖實錄』 권121 宣祖 33년 1월 辛酉

42) 주 9)참조.

을 제조할 수 있는 양이었다. 임진왜란 이전 군기시에 보관된 화약이 27,000근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⁴³⁾ 당시 교역규모를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전에 비해 우근과 유향의 가격을 낮춘 것과 군기의 교역임에도 명 조정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한 것은 원활한 군기교역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조선은 명이 지원한 마가은을 교역 자금으로 사용하면서 제한적이던 명과의 군기교역을 확대시켰음은 물론 일본에서 유입되던 궁각과 유향 등의 군기를 대체하였다. 또한 그 동안 금지되었던 은과 군기라는 금물(禁物)의 교역이 허용되는 계기가 되었다.

군량도 교역을 통해서 확보되었다. 명은 소비기로 인한 기후 이상으로 곡물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⁴⁴⁾ 전쟁기간 약 675,000여 석의 군량을 소비하였다.⁴⁵⁾ 이때 명은 양은(糧銀) 약 5,831,000냥 가운데 미두(米豆)로 교역하는데 사용한 은이 3,000,000냥에 이를 정도로⁴⁶⁾ 매매를 통한 군량의 확보가 많았다. 이는 명이 군량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소비되는 군량과 노역을 줄이기 위해 조선 인근에서 군량을 구입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선도 군량을 지원 받는 과정에서 명과 군량을 교역하면서 명의 군량 지원은 복합적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살피기 위해 『宣祖實錄』에서 발췌한 명의 군량지원 사례를 군량교역의 시기·내용·교역주체·결제수단·교역장소 및 지원형태 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43) 류성룡, 『西厓先生文集』 권16 「雜著」 記火砲之始

44) 김문기, 앞의 논문, 2012, 327~334쪽.

45) 楊理連, 「天津在明朝抗倭援朝戰爭中的作用分析」, 『鄖陽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8, 2008, 87쪽.

46) 楊昭全, 『中韓關係通史』, 吉林人民出版社, 1996, 320쪽.

〈표 2〉 명의 군량 지원

시기	선조실록 기록날짜	내용	교역 주체	결제 수단	교역 장소	지원 형태
임진왜란	1592.12.22.	명이 청포 등으로 시기에 따라 안정(安定)근처에서 쌀을 구입하여 지원	명	포화	조선의 안정 근처	현물
	1593.3.23.	명이 은 수 만 냥으로 강서·요동에서 군량을 구입 후 지원	명	은	명의 강서·요동	현물
	1593.8.28.	명이 산동에서 구입한 쌀과 요동해에서 민간의 비상량(備上糧)을 지원	명	은	명의 산동·요동	현물
	1594.7.16.	조선이 은으로 중강시에서 군량 교역	조선	은	조선의 중강시	교역
	1595.10.7.	조선이 함경도에서 채굴한 은으로 중강시에서 군량 교역	조선	은	조선의 중강시	교역
정유재란	1597.3.14.	군사에게 은을 주고 식량을 조선 내에서 구입	명군	은	조선 국내	교역
	1597.10.11.	명이 은과 청포·화용 등을 조선에 보내서 조선이 국내에서 군량 교역	조선	은·포화	조선 국내	교역
	1598.2.4.	명이 은과 청람포로 조선에서 군량 교역	명	은·포화	조선 국내	교역

〈표 2〉를 보면 명의 군량지원 형태가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쟁초기에는 주로 현물로 지원이 이루어졌다. 명이 군량을 조선에서 확보하여 지원할 경우 1592년 사례처럼 포화로 쌀을 구입하였으며, 명에서 확보할 경우에는 1593년 사례처럼 명 국내에서 은으로 매매하거나 기존에 비축된 군량을 현물로 지원하였다. 명이 조선과 명 국내에서 군량을 매매하는 방법이 다른 것은 조선에서는 은 유통이 원활하지 않아 교역이 어려웠기 때문이다.⁴⁷⁾ 이후 조선도 가격이 싼 요동 지방의 군량을 교역하기 위해 요동도사(遼東都司)에게 의주(義州)의 중강(中江)에서 개시하기를 요청하였다.⁴⁸⁾ 중강개시가 설치되면서 1594·1595년 사례처럼 조선에서 생산·유통되던 은으로 요동 지역의 상인들에게 군량을 구입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정유재란

47) 『宣祖實錄』 권30 宣祖 25년 9월 己未

48) 『宣祖實錄』 권46 宣祖 26년 12월 壬子

시기에도 명은 여전히 현물로 군량을 지원하기도 하였지만 1597·1598년 사례와 같이 명군 개인의 소규모 매매뿐만 아니라 양국이 각각 주체가 되어 조선 내에서 은으로 군량을 교역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은의 사용이 원활하지 않은 지역에서는 국내에서 활용하기 쉬운 면포·가축·어염 등 토산물을 위주로 매매한 후 각 물화의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군량을 확보하는 방법을 함께 사용하였다. 즉, 명의 군수물자 지원은 현물 지원에서 차츰 교역을 위주로 한 군량 지원으로 변화하였으며, 조선 역시 요동의 군량을 확보하기 위해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3. 임진왜란 직후 軍需市場의 발전

가. 군수시장의 형성

임진왜란 이전에 조선은 군기의 생산·유통·매매 등을 통제하고 있었으며, 명이나 일본과 국용을 위한 일부 교역만 허락하였기 때문에 사적 유통을 중심으로 한 군수시장은 형성되지 않았다. 그러나 임진왜란기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는 기술습득과 생산 확대, 명의 현물 지원과 함께 은을 주요 결제수단으로 한 군수교역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군량교역을 위해 중강시가 설치되었으며, 국내에서도 군기의 생산과 유통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군수물자의 확보책이 시행되고 군수교역이 지속되면서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

군수시장은 공·사적으로 생산된 군수물자의 거래가 가능하고 이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형성된다. 당시 군수시장의 특징은 대외교역을 중심으로 형성·확대되었다는 것이다. 전쟁 이후 명과의

군기교역 유지는 염초의 확보와 군수시장의 형성에, 대일교역의 재개는 조총과 군기의 제조 원료인 동철·흑각·유황 등의 교역량 증가에 따른 시장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먼저 명과의 교역 및 시장의 형성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원활한 전쟁 수행을 위해 시행된 조명 간의 염초교역은 명군이 철수하면서 금지되었다.⁴⁹⁾ 그럼에도 조선은 유격 장량상(張良相)으로부터 염초와 유황을 예물로 받거나 염초를 얻기 위해 명의 병부에 이자(移咨)하는 등⁵⁰⁾ 전쟁 이후에도 여전히 명을 통해 군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나) 염초를 구워 만들어 쓰라는 조정의 명령이 있기는 하나 그 공역이 매우 많아 차라리 중국인에게 무역하는 것만 못합니다. 북도에는 은이 나는 곳이 있어 무역을 할 수 있으나 그 길이 한번 열리면 장래에 폐단이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금지하고 하지 않습니다. 윤승훈(尹承勳)이 중국에 직무역할 것을 모르지 않으면서도 비변사에 은을 보냈던 것은 잡음이 자신에게 미칠까 염려해서였는데 비변사가 아직까지 무역해 보내지 않고 있으니, 포수가 무슨 수로 성재가 되겠습니까. (중략) 관원을 보내 은을 캐 본도에서 직접 염초와 화약을 많이 사와 전쟁 물자로 쓰게 하는 것이 매우 마땅하겠습니다.⁵¹⁾

나)는 염초와 화약을 마련하기 위한 신잡(申礮)의 의견이다. 조선은 국내 생산보다는 명과의 교역을 선호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은을 생산하여 결제대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또한 윤승훈이 직무역할 길을 알고 있으나 폐단을 염려하였다는 점, 명과의 공무역이 정례화 되기 이전이었다는 점, 사행을 통한 교역이 아니었다는 점 등을 통해 보았을 때 공식적인 군기교역은 금지되었지만 사무역으로도 확보 할 수는 있었다. 이와 함께 중강개시에서 염초를 매입하고자 진강유격(鎭江遊

49) 이현숙, 앞의 논문, 2004, 354쪽.

50) 『宣祖實錄』 권131 宣祖 33년 11월 丙寅; 권168 宣祖 36년 11월 丁卯

51) 『宣祖實錄』 권134 宣祖 34년 2월 癸巳

擊)에게 이자하는 등⁵²⁾ 공식적인 교역을 시도하는 한편 대명사절을 통한 공무역 재개에도 노력하였다.

조선은 1606년부터 매년 동지사(冬至使)를 통한 3,000근의 염초교역을 정례화 하였으나 1609년 명은 교역을 중단, 조선의 지속적인 요청 끝에 1610년 교역이 재개되었다.⁵³⁾ 1618년 명은 산해관(山海關)에서 수천 근에 이르는 밀무역을 지적하며 연례 교역 이외에는 금지하고자 하였으나, 조선은 오히려 더 많은 양의 교역을 허락해 줄 것은 물론 궁각 등의 교역도 함께 요구하고자 하였다.⁵⁴⁾ 이처럼 조선은 정해진 수량보다 공·사적으로 많은 염초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후의 염초교역은 정례화에서 벗어났다. 1619년 명은 진주사(陳奏使) 이영(李輦)에게 은 3,000냥을 지원하고 염초나 궁각 등을 교역하도록 하였는데⁵⁵⁾ 임진왜란기 마가은을 이용한 군기교역의 선례를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명은 조선이 후금정벌을 위해 원군을 일으키면 요동의 화약과 군량을 무상으로 지원하고자 하거나⁵⁶⁾ 인조대에는 정기사행은 2만근, 임시사행은 1만근의 염초를 교역하기도 하였다.⁵⁷⁾ 이는 후금과의 관계 악화와 요동지역의 단절 등 시대적 요인에 기인한 변화다.

명은 조선과의 염초교역을 건주여진(建州女眞)의 세력을 견제하는 방편으로 시행하였기에⁵⁸⁾ 교역 시기나 양이 일정하지 못했다. 이에 조선정부는 국내 생산량을 증가시키고자 염초의 생산량을 매월 대읍 40근·중읍 30근·소읍 15근으로 규정하였다.⁵⁹⁾ 광해군대에는 조총과

52) 『宣祖實錄』 권159 宣祖 36년 2월 辛丑

53) 『宣祖實錄』 권201 宣祖 39년 7월 甲申; 『光海君日記』 권21 光海君 1년 10월 辛酉; 권27 光海君 2년 윤3월 庚午

54) 『備邊司謄錄』 2책 光海君 10년 5월 22일

55) 『光海君日記』 권143 光海君 11년 8월 乙卯

56) 『光海君日記』 권143 光海君 11년 8월 壬戌

57) 유승주, 앞의 논문, 1976, 119쪽.

58) 허태구, 앞의 논문, 2002, 206쪽.

59) 『宣祖實錄』 권164 宣祖 36년 7월 丁丑

화약 및 연환까지 각 읍에서 자체 조달하도록 하는 월과군기법(月課軍器法)을 정비하였다.⁶⁰⁾ 그러나 기술자와 제조 원료의 확보가 비교적 용이했던 중앙의 군영을 제외한 각 읍들은 민간제조업자들이나 중간상인을 통해 구입하였다.⁶¹⁾

이처럼 임진왜란 이후에도 명과의 군수물자 교역은 여전히 지속되었으며 군량교역을 위해 설치되었던 중강시가 군기교역의 가교역할을 하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군기 생산이 일부 전가되고 사신이나 관리들에게는 군수물자의 확보가 포상이나 재정 확보의 수단이 되었다.⁶²⁾ 생산보다 매매로 군기가 확보되면서 군기의 상품적 가치가 증가하였고 자연스럽게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

나. 대일교역 재개와 시장의 확대

군수시장은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기반으로 한 만큼 시장의 확대에 앞서 시장의 지속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이 건국되고 대외 관계가 안정된 후에도 조선의 역관들과 만상군관(灣上軍官) 및 무역별장(貿易別將)들은 사무역으로 염초를 구입하였다.⁶³⁾ 일본과는 공무역을 통해 흑각을 교역하였고 조선정부나 군문의 지시 혹은 묵인 하에 유향의 교역이 이루어졌다.⁶⁴⁾ 특히 동래상고와 왜학역관을 중심으로 설립된 공각계는 사무역으로 많은 이윤을 추구하였다.⁶⁵⁾

이와 함께 국내의 군수시장도 발전하였다. 월과군기법은 대동법

60) 국방군사연구소, 『韓國武器發達史』, 국방군사연구소, 1994, 669쪽.

61) 유승주, 「朝鮮後期 貢人에 관한 一研究」 上, 『歷史學報』 71, 역사학회, 1976, 12쪽.

62) 1백 근 미만의 염초를 납부한 사람들에게도 포상하였으며(『光海君日記』 권63 光海君 5년 2월 甲午), 군수(郡守)가 타 지역에 여분의 염초를 팔아서 그 돈으로 다른 군기를 장만하기도 하였다(『備邊司謄錄』 3책 仁祖 19년 6월 26일).

63) 유승주, 앞의 논문, 1979, 123쪽.

64) 김동철, 앞의 논문, 1995, 255쪽.

65) 김동철, 앞의 논문, 1991, 56~59쪽.

시행 이후 민간제조업자들이 민결에서 수취한 월과가(月課價)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제조하여 납품하는 공물 형태로 변화되었다.⁶⁶⁾ 군기의 상품화가 촉진되면서 제조업은 급격히 성장하였고,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공가(貢價)와 시가(市價)의 차이는 확대되어 갔으므로 많은 이윤을 보장하였다.⁶⁷⁾ 군수시장은 일정치 않은 교역량과 국내생산량 등 규모면에서는 한계가 있었으나 여전히 청과 일본을 통해 군수교역이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도 군수시장이 지속되었다.

이처럼 군수시장이 지속·확대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대일교역의 재개이다. 일본과의 통교재개는 후금의 발호로 인한 남방 안정이라는 틀 속에서 설명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논문은 이를 군수물자 확보의 필요성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대일교역을 통한 군수물자의 확보는 사신의 왕래 과정에서 이루어진 조총 중심의 군기교역과 공무역을 통한 제조 원료의 교역으로 나눌 수 있다.

조선정부는 일본과의 통교가 재개되기 이전부터 조총의 교역을 위해 노력하였다. 강화교섭기임에도 황신(黃愼)은 조총 한 께미를 교역하였다.⁶⁸⁾ 1601년에는 소 요시토시[宗義智]·야나가와 시게노부[柳川調信]가 가져온 총과 창, 다치바나 토모마사[橋智正]가 바친 흑각 등을 값을 정해서 토산물로 지급하였다.⁶⁹⁾ 1602년에는 토모마사가 가져온 조총 10자루 등을 구입하였다.⁷⁰⁾ 임시조치로 허용된 소량의 교역은 대마도 측의 진상에 대한 회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지속적이었던 만큼 일종의 교역 형태로 볼 수 있다.⁷¹⁾ 회답검쇄환사가 파견되면

66) 이왕무, 「17~18세기초 鳥銃製造에 관한 研究」, 경기대학교석사학위논문, 1996, 46~47쪽.

67) 유승주, 앞의 논문, 1976, 11쪽.

68) 황신, 「日本往還日記」 『國役海行摠載』 권8, 민족문화추진회, 1974, 167쪽. 사료상 단위는 串으로 나오는데 한 께미의 정확한 수량을 알 수는 없다. 단일 수량은 柄, 挺 등으로 표기되나 본 논문에서는 자루로 통일한다.

69) 『宣祖實錄』 권143 宣祖 34년 11월 戊午

70) 『宣祖實錄』 권152 宣祖 35년 7월 己巳

71) 이현중, 「己酉條約成立始末과 歲遺般數에 對하여」, 『항도부산』 4, 부산직할시,

서 조선은 더욱 적극적으로 조총을 교역하고자 하였는데, 군관·군관의 노자·상하급 역관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⁷²⁾

다) 적을 막는 병기로는 왜의 조총만한 것이 없다. 우리나라가 대략 만드는 법을 배워 만들기는 하였으나 모두 쓸 수 없었다. 얼마 전에 함경 감사가 은자를 모아 올려 보내서 조총을 사가기까지 하였었다. 만일 이번 회답사의 사행에 해조에게 물건 값을 헤아려 주게 하여 조총을 편리한 대로 다수 사들여 오게 한다면 적국의 병기를 배에 가득히 싣고 돌아온다 해도 참으로 방해되는 바가 없을 것이다.⁷³⁾

다)는 1607년 선조가 회답검쇄환사에게 조총 교역을 지시한 사례다. 국내에서도 조총의 생산은 가능하나 질이 떨어진다는 점, 은으로 조총의 거래가 이루어졌다는 점, 조총을 많이 교역하더라도 일본에서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일본에 대한 적대적인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점 등을 통해 군기 확보의 중요성과 조총교역의 단면을 알 수 있다. 임진왜란 직후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사신파견 과정에서 일본은 대마도를 통해 통교재개를 시도하면서 군기를 보내 조선의 환심을 사고자 하였고, 조선은 사신이 일본에 가는 기회를 이용하여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였다.

대일교역의 재개는 군기교역의 증대로 이어질 수 있었다. 조선후기 교역의 기본 체계가 되었던 기유약조를 논의할 당시 강화를 허락하는 것보다 약조의 내용을 정하기 어렵다는 논의는⁷⁴⁾ 일본과의 통교재개 과정에서 교역이 가지는 중요성을 의미한다. 그 과정에서 조선정부는 조총·궁각·은뽀만 아니라 금지된 물건까지로 교역을 허락하고 시장을 열어 세금을 거두자는⁷⁵⁾ 대일교역 물품의 확대에 대한 논의로

1964, 237~238쪽.

72) 양홍숙, 앞의 논문, 2005, 162~172 참조.

73) 『宣祖實錄』 권207 宣祖 40년 1월 戊辰

74) 『光海君日記』 권17 光海君 1년 6월 丙寅

75) 『光海君日記』 권26 光海君 2년 3월 庚辰

이어졌다. 이처럼 군기와 은은 더 이상 통제 물품이 아닌 주요 교역품으로 여겨졌다. 그리고 대일교역의 재개는 군기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확보로 이어졌다.

〈표 3〉 1614년 대일교역 거래품목

물품	동철	납	단목	흑각
수입 수량	20,700근	9,581근	325근	297통(桶)
공목절가(公木折價)	100근=공목 60필	1근=공목 2필	3근=공목1필	1통=공목3필
총 결재액	12,420필	19,162필	108필	891필
비율(%)	38%	59%	0.3%	2.7%

출처: 田代和生, 『近世日朝通交貿易史の研究』, 創文社, 1981, 66쪽 표 I-2 재인용 및 수정

〈표 3〉은 1614년 대일교역 물품으로 활의 재료인 흑각, 연환을 만드는 납, 화기의 주원료인 동철 등이 99.7%로 교역 물품의 대부분이며, 650동이 넘는 목면을 교역자금으로 사용하였다. 목면 650동은 쌀 21,600석이 넘는 양으로⁷⁶⁾ 전쟁으로 황폐해지고 전결수가 임진왜란 이전보다 1/3로 감소하여 재정이 극도로 불안한 점을 감안하면⁷⁷⁾ 군수물자 확보를 위해 막대한 재정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화기도감(火器都監)은 화기 생산에 왜동(倭銅)을 사용할 수 있었고,⁷⁸⁾ 궁각과 연환의 확보 수량 역시 증가하였으니 대일교역 재개가 군기 제조의 원료 확보에 미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다.

조총의 생산 및 교역량도 증가하였다. 1614년 조선은 조총칭(鳥銃

76) 1614년 목면 1동은 50필이며, 1필로 쌀 10두를 구입할 수 있었다(『光海君日記』 권80 光海君 6년 7월 甲子).

77) 임진왜란 전후의 재정에 관해서는 황하현, 「壬辰倭亂과 國家財政의 破綻」, 『경제연구』 1, 한양대학교경제연구소, 1979 참조.

78) 『火器都監儀軌』 1615년 1월 21일

廳)을 화기도감으로 재편하였는데, 인조대 도감에 설치된 제조장의 수가 17개로 늘어나면서 한 달 동안 170자루의 조총을 제조할 정도로 생산량이 증가하였다.⁷⁹⁾ 이와 함께 월과군기법을 통한 조총 제조의 폐단을 막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조총을 수입 할 것을 적극적으로 논의하였다.⁸⁰⁾ 따라서 세은(稅銀)이나 결가(結價)를 이용하여 왜관이나 대마도에서 조총을 교역하고자 하였다. 이처럼 생산량이 늘어나고 조총교역이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국내 보유량도 증가하였다. 1627년 양서(兩西)를 제외한 6도에서 보유하고 있는 조총이 17,180자루였는데,⁸¹⁾ 1641년에는 8도에 50,000자루에 이르렀다.⁸²⁾ 이러한 조총의 증가는 사행을 통한 조총의 교역, 왜관에서의 매매와 지속적인 국내 생산으로 인한 것으로 이는 사적 매매로 이어진다. 조선정부가 저지에서 200여 자루의 조총을 구입하거나⁸³⁾ 백성이 왜관에서 일본 검이나 조총을 구입하고자 하는 등⁸⁴⁾ 큰 어려움 없이 국가와 개인이 비교적 쉽게 조총을 매매 할 수 있었다. 호란 이후에는 조총의 사적매매가 더욱 활발해져 1642년 이전에 속오군 중 스스로 조총을 마련한 사람이 5,025명에 이를 정도였다.⁸⁵⁾ 조총 역시 염초와 마찬가지로 사적인 생산과 거래가 용인되었으며, 상품성은 더욱 증가하였던 것이다.

대일교역의 재개과정에서 군수물자 교역은 주요 논의 중 하나로 다루어졌으며 대일교역의 재개는 군수시장의 전환점이 되었다. 명과의 불안정한 군수교역에서 벗어나고, 은이라는 결제수단 부족으로 인한 교역량의 한계를 극복하여 조선의 토산물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군수교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즉 임진왜란기 명과의 군수

79) 『承政院日記』 3책 仁祖 14년 8월 7일

80) 『承政院日記』 1책 仁祖 1년 4월 13일

81) 『仁祖實錄』 권16 仁祖 5년 5월 丙寅

82) 『承政院日記』 4책 仁祖 19년 5월 17일

83) 『仁祖實錄』 권5 仁祖 2년 4월 戊申

84) 『光海君日記』 권87 光海君 7년 2월 己卯

85) 『承政院日記』 4책 仁祖 20년 11월 11일

교역을 기반으로 한 직후의 염초교역과 군기 생산으로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면 일본과의 교역재개로 조충을 비롯한 군기 제조 원료의 교역이 가능해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하여 군수시장이 확대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4. 軍需交易의 영향

가. 군량운반과 私船의 활동

임진왜란기 조명 양국에서 확보된 군량의 운반은 조선의 책임 하에 이루어졌다. 육로로 군량을 운반할 경우 병사 가운데 노약자나 승군·전쟁터에 종군한 자들을 제외한 무과급제자·전쟁에서 도망간 자 등이 운반하였으나,⁸⁶⁾ 노역에 따른 폐해와 운반량 등의 문제로 최대한 선박을 이용하여 수로로 운반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선박의 확보 및 활용은 군수물자 특히 군량의 운송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조선 후기 사선 활동의 주요 특징은 선가(船價) 지급, 경강지역 중심의 사선 이용, 대동법 시행으로 인한 미곡의 운반량 증가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임진왜란기 군량의 교역과 운송과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먼저 임진왜란기 사선의 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 종종 말년에는 파선 사고와 변방 수비 등을 이유로 세곡의 사선조운(私船漕運)이 이루어졌다고 하나⁸⁷⁾ 여전히 조창제가 중심이었다.⁸⁸⁾ 그러나 일본의 침략으로 기존 조운체계가 붕괴되고, 많은

86) 『宣祖實錄』 권33 宣祖 25년 12월 癸丑; 권35 宣祖 26년 2월 癸巳; 권35 宣祖 26년 2월 癸丑

87) 최완기, 「朝鮮前期의 穀物貨運考」, 『史叢』 23, 고려대학교역사연구소, 1979, 21쪽.

88) 한정훈, 「15·16세기 漕倉制의 재정립과 그 이해방향」, 『역사와 경계』 49, 경남사학회, 2015 참조.

관선이 파선되었으며, 추가로 관선이 제조되더라도 주로 병선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⁸⁹⁾ 이러한 이유로 사선이 관선을 대신하여 군량 운반에 활용된 것이다.

전쟁초기부터 군량운반을 위해 관선과 사선이 동원되었다.⁹⁰⁾ 그러나 관선은 수효가 적어 주로 어업과 상업에 사용되던 사선에 의지하였다.⁹¹⁾ 사선이 군량운반에 동원되면서 사선의 소유주는 생업에 나서지 못하였기에 이들에게 선가와 상을 주었다.⁹²⁾ 이를 위해 두 차례 이상 운반한 자들에게 복호(復戶)를 내리거나 공명첩을 주고, 혹은 선가로 은이나 운반하는 군량의 2/10를 지급하는 것이 논의되었다.⁹³⁾ 임진왜란기 군량운반 과정에서 사선의 동원과 선가지급은 사선을 통한 경제활동이 일부 가능해졌음을 의미한다.

사선의 활동 범위는 크게 명과 조선을 잇는 국외활동과 조선 국내의 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명의 군량은 주로 천진에서 출발하여 등주(登州)에 이르면 바다를 건너 여순(旅順)에 도달한 다음, 여순에서 조선에 이르렀다.⁹⁴⁾ 이 과정에서 금주위(金州衛)에 있는 군량을 운반하고자 조선의 공·사선을 모았으며 해로 습득을 위해 사공 2~3명과 통사 1명을 보내도록 하였다.⁹⁵⁾ 이처럼 명의 군량을 운반하면서 조명 간에 끊겼던 바닷길이 연결되었다.⁹⁶⁾ 조선과 명은 군량 운반과정에서 해로를 공유하였음은 물론 조선의 사선에 선가를 지급하고 군량의 운반에 활용하였다.

89) 세종대부터 병선과 조선을 겸용하였다(『成宗實錄』 권216 成宗 19년 5월 戊子).

90) 『宣祖實錄』 권34 宣祖 26년 1월 丁卯; 권41 宣祖 26년 8월 庚子

91) 『宣祖實錄』 권66 宣祖 28년 8월 丁卯; 권83 宣祖 29년 12월 戊寅

92) 『宣祖實錄』 권44 宣祖 26년 11월 己巳

93)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甲午; 권46 宣祖 26년 12월 庚戌; 권99 宣祖 31년 4월 癸亥

94) 『宣祖實錄』 권97 宣祖 31년 2월 辛未

95) 『宣祖實錄』 권46 宣祖 26년 12월 庚戌

96) 『宣祖修正實錄』 권27 宣祖 26년 4월 乙酉. 명이 후금에게 요동을 빼앗긴 후에는 사행로로 해로가 계속 이용되었다.

국내에서는 군량의 집결지이자 발선지로서 경강지역이 사선활동의 중심지였다. 임진왜란 이전부터 한강 연안에서 어선·진선(津船) 등으로 생계를 영위하던 소선인(小船人)들을 비롯한 경강선(京江船)은 곡물뿐만 아니라 어염·목재와 같은 생필품까지도 선운(船運)하였으며 16세기 말에는 무곡 활동에까지 진출, 곡물상선으로서의 지위를 구축하고 있었다.⁹⁷⁾ 따라서 전쟁 중에도 이들 경강지역의 사선을 중심으로 군량이 운송되어졌다.

경강에 사는 사람들은 수군의 격군으로 삼을 정도로⁹⁸⁾ 선박의 운용에 뛰어났다. 전쟁 초기 피난을 나온 경강의 배는 수백여 척에 이를 정도였다.⁹⁹⁾ 모든 배가 가용선은 아니었지만, 경강지역에는 소선이라 하더라도 운행 가능한 배들이 많았기에 개성(開城)의 적전(籍田)·금곡창(金谷倉)·아산창(牙山倉)·흥원창(興源倉) 등 각지에서 군량을 운반해 오도록 하였다.¹⁰⁰⁾ 그리고 효율적인 선박 운용을 위해 주사대장(舟師大將)을 설치하고 어부로 장부에 기재된 선박 외에는 성책(成冊)하였는데, 소재지 관원으로 하여금 모두 화인(火印)을 찍어서 글자로 호(號)를 만들어 대종(隊綜)을 이루도록 하였다.¹⁰¹⁾

다음으로 임진왜란기 대표적 군량 집결지였던 용산창(龍山倉)과 강화해구(江華海口)에서 군량을 확보하고 비슷한 시기 명군에게 방출한 언급이 있으므로 이를 통해 경강을 중심으로 활동한 사선들의 운송량과 이에 따른 활동 모습의 단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97) 최완기, 앞의 논문, 1979, 39쪽. 조선후기의 이른바 경강상인 역시 이들이 발전된 모습이다(강만길, 『朝鮮後期 商業資本의 發達』, 고려대학교출판부, 1973, 59-69쪽).

98) 『宣祖實錄』 권72 宣祖 29년 2월 己亥

99) 『宣祖實錄』 권26 宣祖 25년 5월 戊子

100) 『宣祖實錄』 권26 宣祖 25년 5월 壬午

101) 『宣祖實錄』 권98 宣祖 31년 3월 更子; 권100 宣祖 31년 5월 壬辰

〈표 4〉 용산창과 강화해구에서 확보된 양 (1597.5.~1598.9.)

종류	조선	명	공동	합계
도미(稻米)		16,110석		16,110석
대미(大米)	61,520석			61,520석
소미(小米)	20,100석	114,070석	27,020석	161,190석
콩	86,130석	54,840석	19,300석	160,270석
합계	167,750석	185,020석	46,320석	399,090석

출처: 『宣祖實錄』 권104 宣祖 31년 9월 庚戌

〈표 5〉 명군에 방출한 미곡 수량 (1597.5.~1598.2)

종류	방출량	명에서 유입된 양	조선의 실제 방출량	비 고
대미	72,613석		72,613석	총 지출: 240,863석 국용: 27,413석 명 유입: 16,522석
소미	22,292석	6,866석	15,426석	
콩	117,447석	9,656석	107,791석	
대맥(大麥)	1,098석		1,098석	
합계	213,450석	16,522석	196,928석	

출처: 『宣祖實錄』 권98 宣祖 31년 3월 戊子

〈표 4〉는 용산창과 강화해구에서 확보한 조선과 명의 군량에 관한 것이고 〈표 5〉는 명군에게 방출한 군량의 양이다. 경강상인과 선운업의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 대동법(大同法)이 시행된 이후인 17세기 후반, 대동미는 전체가 428,648석이고 경기지역은 45,316석에 이르렀다.¹⁰²⁾ 1597년 5월에서 1598년 9월 간 용산창과 강화해구에서는 군량 399,090석이 모였으며, 1597년 5월에서 1598년 2월 사이 213,450석이 명군에게 방출되었는데 모인 군량은 대동미 전체 수량에 필적하며 방출한 군량은 경기지역 대동미의 4배가 넘는 양이었다. 당시 사선은 큰 것은 5~6백석, 작은 것은 1~2백석을 운반할 수 있었기에¹⁰³⁾ 조를 나누어 순차적으로 수차례 왕복하며 운반하면서

102) 최완기, 『朝鮮後期船運業史研究』, 일조각, 1989, 98쪽 표 3 참조.

103) 『宣祖實錄』 권89 宣祖 30년 6월 壬申

선가를 지급받았으며, 일부 사선들은 무곡활동에도 참여하였다.

부상대고를 비롯한 서울의 상인들은 전쟁을 피해 안전한 지방에서 상업 활동을 하였고¹⁰⁴⁾ 임진왜란 초기에 가장 피해를 입었던 경상도에서도 장시가 형성되었다.¹⁰⁵⁾ 교통·운수의 조건이 좋은 지역, 해안이나 큰 강을 끼고 있는 지역의 장시에서는 선상과의 교역이 이루어졌다.¹⁰⁶⁾ 임진왜란기 선박을 이용한 무곡 활동은 이들 장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매매한 군량은 경성이나 전쟁지역으로 운반되었다.

이와 함께 조선은 평안도·황해도·충청도·전라도의 재목이 있는 곳에서 선박을 제조하였으며¹⁰⁷⁾ 명의 조선술을 습득하여 배를 만들기도 하였다.¹⁰⁸⁾ 임진왜란 이후에는 사사로이 배를 만들어 군량과 기계를 마련하고 경강에서 장사를 하거나 배를 팔기도 하였다.¹⁰⁹⁾ 군량운반 과정에서 조선의 배를 만드는 기술도 개선되었음은 물론 배를 이용한 매매 활동을 위해 사선의 매매도 이루어졌다.

유형원(柳馨遠)은 연해의 고을이 사선을 이용하여 경성으로 곡물을 납부하는 것은 전쟁이 끝난 이후라고 지적하고 있다.¹¹⁰⁾ 이는 16세기부터 곡물운송에 일정한 역할을 해오던 사선들이 임진왜란기 경강지역의 사선과 민들을 중심으로 많은 군량을 운반하면서 그 역할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들 사선은 임진왜란 이후 무너진 조운체계에서도 관선을 대체해 나가면서 조선후기 경강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선활동에 영향을 미쳤다.

104) 이항복, 『白沙先生別集』 권1 「啓辭」 陳時務畫一啓

105) 조정, 『黔澗集』 「辰巳日錄」 壬辰 7월 25일

106) 이경식, 「16世紀 場市の 成立과 그 基盤」, 『한국사 연구』 57, 한국사연구회, 1987, 57쪽.

107) 『宣祖實錄』 권97 宣祖 31년 2월 丁巳; 권97 宣祖 31년 2월 丁丑

108) 『宣祖實錄』 권52 宣祖 27년 6월 戊午

109) 『宣祖實錄』 권152 宣祖 35년 7월 丁丑; 권153 宣祖 35년 8월 庚戌; 권166 宣祖 36년 9월 甲寅; 권171 宣祖 37년 2월 丁亥

110) 유형원, 『磻溪隨錄』 권3 「田制後錄」 漕運

나. 銀 유입과 실용성의 증가

조선은 명의 금은세공(金銀歲貢)에서 벗어난 이후 민간에서의 은 유통을 엄격히 통제하고, 금은의 매매를 금지하였다.¹¹¹⁾ 16세기 은 유통량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일본 은이 유입되었음에도 조선은 은 광 개발에 소극적이었고 여전히 유통을 억제하였다. 임진왜란 이전 은은 사치품이나 국용 등 한정된 용도로 사용되어 실용성이 높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진왜란 때 명이 조선에서 은을 사용하면서 국가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하였다.¹¹²⁾ 이는 임진왜란이 조선의 은 유통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의미하며, 매개체 역할을 하였던 것이 군수교역이라고 할 수 있다. 군수교역 과정에서 대량의 은이 유입되면서 그 영향으로 유통의 길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의 유입과 조선의 은 사용량 증가 그리고 은을 국용으로 보충하기 위한 논의를 통해 군수교역이 은 유통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조명 양국의 서로 다른 인식 속에서도 은이 유통될 수 있었던 배경을 살펴보자. 조선은 미포(米布)가 화폐 역할을 하였고, 공·사무 역의 자금으로도 주로 토산물을 사용하였으며 은을 사치품으로 여겨 생산과 유통을 지속적으로 통제하였다. 이에 반해 명은 국내외적으로 은 유통이 활발했으며, 화폐로도 사용하고 있었다. 서로 다른 상황이었지만 당시 양국에 유통된 은의 형태가 큰 차이가 없었던 점이 원활한 유통의 배경이 되었다. 전쟁 전후 조선에서 유통된 은은 덩어리 형태이거나 얇은 조각 형태였으며,¹¹³⁾ 명도 덩어리 형태의 백은을 주로 사용하였다.¹¹⁴⁾ 양국에서 유통된 은은 따로 규격화된 화폐로 제조하지 않았으며, 품질과 중량에 따라 가치를 지녔고, 보유 은 가운데

111) 『經國大典』 「刑典」 禁制

112) 『萬機要覽』 「財用篇」 金銀銅鉛; 『增補文獻備考』 「財用考」 金銀銅

113) 『中宗實錄』 권82 中宗 31년 7월 戊辰

114) 하오예핑 지음·이화승 옮김, 『중국의 상업혁명』, 소나무, 2011, 51~52쪽.

전쟁 이전 유입된 일본 은이 많았다. 따라서 군수교역 과정에서 은은 결제수단으로서 기능이 강조되어 감에 따라 부족한 조선의 미포를 대체하며 서로 유통될 수 있었다.

두 번째로 군수물자 확보과정에서 많은 양의 명은이 조선에 유입되었다는 점이다. 당시 조선정부의 은 보유량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임진왜란 직전 유입·생산량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세계적으로 은 유통이 증가하던 중종대 일본은을 공식적으로 교역한 적은 있으나 이는 교린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부분의 일본 은은 잠상들을 통해 유입되었다. 조선의 가장 대표적 은광인 단천은광의 경우 매년 약 1,000냥을 기준으로 수세하였으나 그 양은 일정하지 않았다.¹¹⁵⁾ 이마저도 임진왜란 직전에는 채취가 금지된 상태였으며, 임진왜란 당시 개광하였을 때도 수세량은 1년에 5,000냥 정도에 불과하였다.¹¹⁶⁾ 전쟁기간 국내에 있던 은은 백성들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은이나 전쟁 이전 일본에서 유입된 은이 대부분이었으며, 조선 국내의 은 생산량도 많지 않았다. 임진왜란기에도 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으나¹¹⁷⁾ 전쟁을 수행하기에는 부족하였다. 따라서 원활한 군수교역을 위해 명은이 대량으로 유입되었다.

명은 군량과 군기를 구입하기 위해 군수은량(軍需銀兩)을 사용하였으며¹¹⁸⁾ 전쟁기간 약 2,000만 냥을 소비하였다.¹¹⁹⁾ 또한 조선과 군수

115) 『中宗實錄』 권64 中宗 23년 윤10월 戊子; 권93 中宗 35년 9월 戊戌

116) 『宣祖實錄』 권97 宣祖 31년 2월 乙丑. 이후의 기록에는 대부분 1천 냥을 수취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宣祖實錄』 권109 宣祖 32년 2월 丙辰; 권123 宣祖 33년 3월 甲寅; 『光海君日記』 권82 光海君 6년 9월 甲寅. 은을 채굴하는 수량에 관계없이 1천 냥만 국가에 바치는 공은제(貢銀制)로 변화했기 때문이다. 『萬機要覽』 「財用篇」 金銀銅鉛.

117) 속형(贖刑), 납속제관(納粟除官), 징납(徵納) 할 때 은으로 거두거나(『宣祖實錄』 권49 宣祖 27년 3월 戊申), 은을 바치는 자를 면역·면천시켜주었다(『宣祖實錄』 권51 宣祖 27년 5월 壬寅). 전쟁 이후에도 명과 교역한 값을 치르기 위해 은광을 개발하고(『宣祖實錄』 권166 宣祖 36년 9월 己卯), 중강개시에서 은으로 세를 거두거나(『宣祖實錄』 권160 宣祖 36년 3월 甲戌), 중강시에서 유지(油紙)를 교역하여 은을 마련하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160 宣祖 36년 3월 癸未).

교역이 가장 많았던 요동진의 경우 1593년의 군마전량 분포를 살펴보면 은이 937,700냥인 13.11%로 13진 중 가장 많이 소요되었음을 볼 때¹²⁰⁾ 막대한 은이 유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표 6〉 조선에 유입된 은의 유형과 사례

출 처		사 례	전거(『宣祖實錄』)
국가	조정	조선에 은을 주어 군수물자를 교역.	권35 26년 2월 乙未; 권46 26년 12월 甲戌
		장령 및 순직한 원역에게 은을 지급.	권36 26년 3월 甲子
	태복시	군기 교역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	권91 30년 8월 甲子
개인	상인	강상(江上)에서 3개월간 세은(稅銀)이 3천 냥에 이를 정도로 활발한 매매 활동.	권69 28년 11월 丙申
	관료	왜적의 머리를 보내자 요동도사가 조선의 장수들에게 은을 지급.	권28 25년 7월 癸亥
	군사	음식·잡물 등의 구입비를 은으로 지급토록 함.	권86 30년 3월 甲辰

〈표 6〉은 전쟁기간 명에서 은이 유입되는 대표적 유형을 사례를 들어 정리한 것이다. 명은은 크게 국가와 개인이라는 두 가지 통로를 통해 유입되었다. 〈표 6〉과 군수교역 과정을 함께 살펴보면, 명 조정에서 유입된 은은 대부분 군수물자 특히 군량을 교역하거나 혹은 군공을 포상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태복시를 통해 유입된 은은 주로 군기의 교역 자금으로 사용되었다.

개인일 경우 명 상인은 중강시에서 교역활동을 하거나 명군을 따라 내지로 들어와서 매매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은이 유입되었다. 특히 명나라 상인들의 조선 진출로 국내의 은 유통이 이전보다 활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¹²¹⁾ 관료는 주로 포상이나 사행과정에서, 명군은 직접 은을 받아 식량 등의 생필품을 구입하면서¹²²⁾ 조선으로 은이 유입

118) 『宣祖實錄』 권53 宣祖 27년 7월 癸未
 119) 최두환, 앞의 논문, 2011, 160쪽. 『明史』 권235 「列傳」 123 王德完.
 120) 賴建誠, 앞의 논문, 2005, 274쪽 표 14-5 참조.
 121) 한명기, 앞의 논문, 1992, 3~12쪽.
 122) 전쟁초기 병사 한 사람당 월급·월량(月糧)으로 은 1냥 5전, 행량·염체에 필요한

되어 유통을 자극하였다.

세 번째로 조선도 군수교역 과정에서 은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임진왜란 초기만 하더라도 은의 실용성은 한정적이었지만 전쟁이 장기화됨에 따라 조선도 은으로 군수물자를 확보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중강개시에서 곡식을 마련하거나, 면화와 말을 무역하는데 은을 사용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다.¹²³⁾ 명의 군수물자를 지원 받는 과정에서 그동안 통제되었던 조명 간의 은 유통이 공식화되고, 대외결제 수단으로 이용되면서 은의 실용성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서울을 중심으로 일부 지역의 장시에서도 은의 사용이 이루어졌다.¹²⁴⁾ 백성들은 주육(酒肉)·두포(豆泡)·염장(鹽醬)·시초(柴草) 등의 물건까지도 은으로 매매하면서¹²⁵⁾ 저자에서 물가를 움직일 정도로¹²⁶⁾ 은의 유통이 활발해졌다. 조선후기에 이르러서는 우마(牛馬)나 전답(田畝), 공인권(貢人權) 등 고가의 물품을 매매할 때 은을 주로 사용할 정도로 화폐수단으로서 실용성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국용을 보충하기 위해 은 유통이 논의되었다는 점이다. 임진왜란 때 다시 허용한 채은(採銀)도¹²⁷⁾ 은을 통용하여 재원으로 삼고자하는 의도였다. 더욱이 조선정부는 은의 통용을 넘어 은화의

은 1냥 5전, 옷·신발에 필요한 은 3전, 호상(犒賞)으로 은 3전 등 도합 3냥 6전을 지급하는데 조선에서 2냥 1전을 부담하고 명에서 1냥 5전을 부담하기로 하였으나(『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辛卯), 명에서 3냥 조선에는 6전만을 부담하여 문제가 되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丁未). 그러나 이때 조선은 은 대신 주포(紬布)로 환산하여 지급하고자 했으며, 시대적 상황이나 이후 군량 보급문제와 은을 이용한 곡식 매매 사례 등으로 보아 정유재란 즈음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명군은 밤 한 주발에 은 4푼을 지급하기도 하였다(『宣祖實錄』 권99 31년 4월 戊寅).

123)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丙午; 권82 宣祖 29년 11월 丙申

124) 이정수, 「16세기 중반~18세기 초의 貨幣流通 실태」, 『조선시대사학보』 32, 조선시대사학회, 2005, 107~111쪽 참조.

125) 『宣祖實錄』 권99 宣祖 31년 4월 壬戌; 신흠, 『象村稿』 권53 「山中獨言」

126) 『宣祖實錄』 권139 宣祖 34년 7월 丙午

127)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甲申

사용에 대해 고민하였다.

라-1) 이성중(李誠中)은 아뢰기를, “일이 정해진 후에 마땅히 병제를 개정해야 하고, 또 은화를 통행시켜야 합니다. 하늘이 낸 보장(寶藏)을 통행하지 않고 있으니 좋은 계책이 아닙니다.”라고 하였다.¹²⁸⁾

라-2) 호조가 아뢰기를, 이덕형(李德馨)이 연중(筵中)에서 아뢰기를 ‘우리나라는 본래 은을 화폐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비록 채은은 허락하였으나 통행되지 못하고 있으니 속전으로 거두어 관아에 바칠 때에 은을 사용할 일을 해조로 하여금 논의하여 아뢰게 하라.’ 하였습니다. 전란이 일어난 이후에 나라의 재정이 탕갈되었으니 은화를 통용하여 의식의 자료를 삼는 것이 진실로 오늘날의 급선무입니다.¹²⁹⁾

군량을 비롯한 군기의 확보과정에서 은이 조선의 군수교역 자금으로 활용되면서 미포 중심의 화폐체제를 부분적으로 대체하였기에, 조선정부는 은을 유통시켜 임진왜란으로 궁핍해진 재정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권희(權禧)가 은광을 열고 돈을 주조할 것을 건의하였으며¹³⁰⁾ 광해군대에도 은을 채굴하여 돈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등¹³¹⁾ 은화 유통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비록 은 생산량과 대외적인 문제로 국내에서의 통용에는 한계가 있어 반대되었지만 군수교역을 위한 재정 극복방안으로 은화 사용의 필요성이 논의되었고, 이를 계기로 동전 제조 및 유통이 촉진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시 말하면 양국에 유통된 은의 성격, 군수물자 확보를 위한 명은의 유입과 유통량의 증가, 조명간의 군수물자 교역을 위한 은 사용량 증가 등의 현상과 맞물리면서 조선 내 은 확보 및 사용을 촉진하였고, 은화 유통에 관한 논의로 이어질 정도로 국내에서 은의 실용성이 증가하였다.

128) 『宣祖實錄』 권33 宣祖 25년 12월 己酉

129) 『宣祖實錄』 권49 宣祖 27년 3월 戊申

130) 『宣祖實錄』 권196 宣祖 39년 2월 辛亥

131) 『光海君日記』 권23 光海君 1년 12월 丁巳

다. 군수교역의 장려와 私貿易 확대

군수물자의 확보는 국내생산의 한계로 주로 대외교역으로 이루어졌다. 조선은 명으로부터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군수교역을 장려하였다. 상인들은 국내외 가격 차이를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였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사무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명의 상인들은 임진왜란기 미곡·면포·유황·염초 등을 공급하여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¹³²⁾ 염초의 경우 중국에서는 공·사적으로 제조해서 판매할 수 있었다.¹³³⁾ 따라서 조선 보다 가격이 저렴하여 중앙과 지방민들이 대부분 중강에서 화약을 매매하였다. 더욱이 중국인들은 요양에서 진강 사이에 있는 관아에서 화약을 훔쳐서 조선 사람들과 거래하기에 이르렀다.¹³⁴⁾ 또한 화약의 제조 원료인 염초와 유황까지도 사무역으로 이루어졌다.¹³⁵⁾ 이는 군기의 생산이 의무화되고, 전매가 허락된 상황에서 국내 생산보다 대외교역을 통해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표 7>은 조·명·일 삼국에서 교역되는 주요 군수물자의 가격과 구입처를 비교한 표이다.

<표 7> 주요 군수물자의 가격차이

군기	조선	중강시	연경	왜관
피곡 1두(石)	1필 이상	1/20필 20배		
염초 1근(斤)	4전	5푼(分) 8배	1푼 8리(釐) 22배	
조총 1병(柄)	3석 5두			1석 2두 2배 이상
유황 100근(斤)	10냥			5~6냥 약 2배

출처: 피곡은 『만기요람』, 연경의 군수물자 가격은 『石塘公燕行錄』 5월 20日 기사 참조.

132) 寺田隆信, 『山西商人の研究』, 東洋史研究會, 1972, 123~124쪽.

133) 『宣祖實錄』 권41 宣祖 26년 8월 丁亥

134) 『宣祖實錄』 권201 宣祖 39년 7월 癸未

135) 『光海君日記』 권25 光海君 2년 2월 庚戌

염초는 『선조실록』 권134 宣祖 34년 2월 丁丑(중강시); 권614 宣祖 36년 7월 丁丑(조선) 기사 참조. 조총은 『반계수록』 권21 兵制(조선); 이왕무, 앞의 논문 1996, 37쪽(일본) 참조. 유황은 『현종실록』 권8 顯宗 5년 2월 임술 기사 참조.

명과는 염초와 곡물을, 일본과는 조총과 유황을 중심으로 교역이 이루어졌다. 당시 가격의 변동과 환산 등의 문제로 정확한 가격비교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국외에서 구입하여 전매함으로써 적게는 2배, 많게는 20배가 넘는 이득을 얻을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이 염초 확보를 위해 각사에 청탁하고 수령이 사육을 채우는 폐단이 발생하거나,¹³⁶⁾ 잡상을 통한 군기의 매매가 이루어졌음에도 조선정부는 국가의 용도와 관련이 있기에 묵인하려는 경향을 보인다.¹³⁷⁾ 이는 대명사절을 통한 교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명은 정해진 수량 이외에는 염초 교역을 금지하였는데 1617년 동지사 이상길(李尙吉)이 4,300여 근을 추가로 교역하였음에도 처벌하지 않고 오히려 포상하였다.¹³⁸⁾ 조선정부의 포상 정책과 더불어 군수물자를 적극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은 사무역을 장려하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표 8>은 사행을 통해 교역이 이루어지던 연경을 제외하고 모문룡(毛文龍)이 주둔하였던 가도(槓島)를 포함하여 군수물자의 교역품과 장소를 『朝鮮王朝實錄』을 참고하여 표로 나타낸 것이다.

<표 8> 군수물자의 교역과 매매 장소

	수출되는 군수물자	수입되는 군수물자	대상	장소
조선	곡물·한도·조총·말·동철	곡물·말·염초·유황·화약	명	중강
	곡물·동철·말	곡물·염초·유황		가도
	곡물	조총·한도·염초·유황·흑각·광물	일본	왜관

<표 8>에서와 같이 중강·가도·왜관이라는 군수교역 통로의 확보

136) 『宣祖實錄』 권134 宣祖 34년 2월 丁丑

137) 『光海君日記』 권49 光海君 4년 1월 丙午

138) 이상길, 『東川集』 권2 「朝天日記」 정월 17일

는 사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적 여건이 성립되었음을 의미한다. 대표적인 곳이 의주의 중강 지역이다. 전쟁기간 중강시는 한 달에 9번 개시하면서 다양한 교역의 기회를 보장하였다. 이에 따라 잠상들의 활동도 활발해졌으며, 관료들과 연계하여 교역이 이루어졌다.¹³⁹⁾ 군량의 교역을 위해 설치되었지만 말을 비롯 염초·유황·조충·환도 등 군기의 교역이 이루어졌으며 차츰 다양한 물품들이 교역되기에 이르렀다.¹⁴⁰⁾ 따라서 외방의 물화가 서울에 모이지 않고 의주지역으로 모였으며¹⁴¹⁾ 명의 상인들도 경외(京外)에까지 몰려들 정도였다.¹⁴²⁾ 즉 군수물자의 확보를 위한 시장의 설치는 군수교역의 장려책과 맞물리면서 개인들이 다양한 물품을 매매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주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따라서 청이 건국된 이후에는 중강을 중심으로 개시와 후시가 설치되었으며 인삼·포·은·비단·소·해삼·다시마 등의 물화가 공·사적으로 교역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명이 후금과의 전투로 요동지역을 뺏기면서 조선에 거주하게 된 모문룡은 가도에 군진을 세우게 된다. 군진인 만큼 조선에 불공평하기는 했지만 군량의 교역이 가장 많았다. 다만 모문룡은 명으로부터 매년 염초 38,000근과 유황 12,000근을 공급받았는데 인조가 염초와 유황을 팔도록 요청하는 등¹⁴³⁾ 조선의 필요로 인한 군기의 교역도 이루어졌다. 모문룡은 조선정부에게 가도와의 교역에서 세금을 거두지 말고 은화를 유통시켜서 균형에 도움이 되게 해 줄 것을 요청하였는데 철산(鐵山)의 마시(馬市)도 이러한 맥락에서 설치되었으며¹⁴⁴⁾ 물화

139) 『宣祖實錄』 권91 宣祖 30년 8월 丙寅

140) 『宣祖實錄』 권50 宣祖 27년 4월 庚午; 권53 宣祖 27년 7월 壬辰; 권84 宣祖 30년 1월 丁未; 권160 宣祖 36년 3월 癸未; 『光海君日記』 권25 光海君 2년 2월 庚戌

141) 『宣祖實錄』 권142 宣祖 34년 10월 癸未

142) 『宣祖實錄』 권124 宣祖 33년 4월 丙申

143) 허태구, 앞의 논문, 2002, 227쪽.

144) 『仁祖實錄』 권7 仁祖 2년 11월 辛未

역시 다양해졌다. 특히 조선의 인삼은 상고(商賈)들과 가도의 밀무역으로 인해 고갈되어 가격이 급등할 정도였다.¹⁴⁵⁾ 이처럼 가도에는 객상이 거주하며 1년 세수가 수만금에 이를 정도로 변화하였으며¹⁴⁶⁾ 마시장을 통해 역관 및 사상(私商)들의 매매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¹⁴⁷⁾ 더욱이 가도를 기반으로 인근 지역인 용천(龍川)·철산 등 조선 내륙 지역에서도 교역이 이루어졌다.

왜관은 조총과 염초교역만이 아니라, 환도 등 다양한 군기의 교역이 이루어졌다.¹⁴⁸⁾ 잠상들이 잇따라 왕래하며 대마도인을 상대로 활을 비롯한 금물의 매매가 이루어졌다.¹⁴⁹⁾ 특히 군진·군영에서도 군기 확보를 위해 공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왜관에서의 교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¹⁵⁰⁾ 조선은 일본이 군기의 수출을 금지한 1621년까지는 왜관의 개시무역을 통해서 일본의 조총과 검 등의 군기들이 비교적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었다.¹⁵¹⁾ 특히 대외관계가 안정된 17세기 중반 이후 왜관에서도 공·사무역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인삼·은·생사·금·은·동·흑각 등으로 물품이 다양해졌으며, 의주의 중강과 연결되어 조선은 일본과 청을 잇는 중개무역이 가능해졌다.

17세기 초반 중강, 왜관, 가도라는 대외교역 시장의 성립은 정치적 영향 아래 있었기에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왜관은 일본의 교역욕구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방안으로 설치되었다. 중강시는 조선의 군량 요청으로 시도되었으나 이후 지속적인 폐지 논의가 이루어졌으며,¹⁵²⁾

145) 『仁祖實錄』 권7 仁祖 2년 11월 壬辰

146) 『仁祖實錄』 권19 仁祖 6년 12월 丁未

147) 『仁祖實錄』 권23 仁祖 8년 12월 乙卯

148) 『宣祖實錄』 권196 宣祖 39년 2월 辛亥

149) 『光海君日記』 권50 光海君 4년 2월 辛未

150) 양홍숙, 『조선후기 東萊 지역과 지역민 동향』, 부산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9, 62~63쪽

151) 米谷均, 앞의 논문, 2000, 41쪽.

152) 辻 大和, 「一七世紀初頭朝鮮の對明貿易」, 『東洋學報』 96-1, 東洋文庫, 2014, 참조. 辻 大和는 중강개시의 폐해로 명은 화약 등 조선의 밀무역을, 조선은 조선

가도는 모문롱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평안도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는 점에서¹⁵³⁾ 부정적인 측면을 무시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정부의 군수물자를 확보를 위한 군수교역의 묵인·장려 방안은 이들 지역이 교역거점지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었으며 교역물품의 다양화와 사무역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후 국제 정세가 안정되면서 증강시와 왜관을 매개로 한 조선의 중개무역이 진행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강조할 수 있다.

5. 맺음말

조선은 임진왜란 당시 군수물자의 자원뿐만 아니라 제조 기술의 습득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기술·자원·재정의 부족으로 명은 조선에게 대량의 군수물자를 지원하였는데 교역을 동반하여 이루어졌다.

임진왜란이 끝난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국제관계는 안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정부는 군수물자를 지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했다. 따라서 명과의 염초교역에 힘쓰는 한편, 군기 확보에 대한 포상 정책을 유지함과 동시에 월과군기법을 시행하면서 군기의 상품화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군수물자를 교역할 수 있는 장소가 확보되고, 국내외 상인 등이 교역에 참여함으로써 군수시장이 형성되었다. 특히 일본과 교역이 재개되면서 조충을 비롯한 군기 제조의 원료가 유입되고 조선의 군수물자 확보 정책과 맞물리면서 군수시장이 확대되었다.

대외교역에 기반을 둔 조선의 군수교역은 조선후기 상업발달의

상인의 불리한 조건과 밀무역 및 기밀정보 누설 등을 언급하였다.

153) 권내현, 『朝鮮後期 平安道 財政運營』, 고려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2 참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군량의 운반은 해운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사선들도 동원되어 그들의 활동을 촉진시켰다. 특히 용산창과 강화해구를 중심으로 대규모의 군량이 운반됨으로써 조선 후기 경강상인을 비롯한 사선의 활동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군수교역의 주요 결제 수단으로 은을 사용하면서 백성들 사이에서도 은을 이용한 매매가 증가하여 은의 실용성이 강화되었다. 군수물자의 부족으로 인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은화의 유통이 논의되고 이를 계기로 동전 주조 논의로까지 이어진 것도 의미가 크다. 마지막으로 군수물자의 확보는 대외교역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폐단이 발생하였음에도 조선정부는 묵인하거나 장려하면서 사무역의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따라 군수물자의 교역처였던 중강·가도·왜관을 통해 다양한 물화들이 보다 자유롭게 교역되기에 이르렀다. 즉 군수교역을 위한 시장의 설치는 대외교역의 창구 역할을 했으며 개인들의 대외교역 진출이 활발해질 수 있는 기반이 되었다.

[원고투고일: 2016.7.30, 심사수정일: 2016.11.13, 게재확정일: 2016.11.21.]

주제어 : 임진왜란, 군수물자 확보, 군수교역, 군수시장, 군수교역의 영향, 군기품, 군량, 사선, 은

<ABSTRACT>

The Research on the Procurement of Military Materials and the Effects of Military logistics trade immediately after the Imjin Waeran

Yun, Yeo-Seok

Josun endeavored to procure the military materiel in many ways during the period of Imjin Waeran, but there was a limit to do so for itself, for the lack of financial resources, techniques, and raw materials. To find the solution, plenty of military supplies were imported to Josun from China, Ming, not simply in a way of support of stuffs, but in a way of funding in order to purchase the military materiel through trade.

The rapidly changing Northeast Asian situation played a role as one of the factors rising necessity of the military materiel procurement after the Imjin Waeran. Josun tried to maintain the reward policy and to enforce the Wolgwagungibeop(月課軍器法) which the government assigned the production of arms to each local authorities in order to procure the military supplies not only from trade, but also through the production domestically. As a result, the arms came to be commodified and then the arms market was formed consequently. Most of all, the resumed trade with Japan made it easier to bring matchlocks and other law materials in Josun so that it led to the increase in the production of arms along with the growth of military markets.

The procurement of these supplies which conducted by the Chosun dynasty in the Imjin Waeran had been developed in a large scale. Since then it had influenced the activities of private boats, the strengthened currency function of silver, and the expansion of private trades. Here were the very vigorous activities of private boats in the process of the transportation for provisions in the markets and shipping business which had been formed from the early

Josun Dynasty. Especially, a great quantity of provisions were transported around the Han river, it influenced the activities of private boats that largely were owned by the merchants in Gyeong-gang(京江) area. Also, the currency of Silver as a payment method for the military trade was increased in value considerably as well, Silver was to be circulated, though so limited, among the common people. Finally the established market for military trade was the channel of foreign trade. What the Josun government had been promoting the military trade became a foundation for the active participation of merchants in the foreign trade.

Key words : Imjin War, Procurement of Military Materiel, Arms Trade, Effects of Arms Trade, Arms, Provisions, Private Boats, Silver